

추천의 말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이 책을 펴낸 열린우리당의 홍미영의원은 어느 의원 보다 더 가장 바람직한 본보기가 될 만한 과정을 거쳐서 의회에 진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장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밝은 앞날이 약속된 의원이다.

홍미영의원은 대학재학시절에 참여하였던 사회봉사활동에서 여성운동과 빈민운동에 대한 관심을 쌓았고 졸업하고 결혼한 후에는 아예 생활터전을 달동네로 옮겨 그 곳 주민들과 함께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해결에 나섰던 것이 계기가 되어 1991년 우리나라 최초의 기초의원선거에서 최다득표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는 이어서 광역시의회의원으로 두 임기를 마친 후 중앙정치권에 진입해 제 17대 국회의원으로서 우리의 삶의 조건을 바꾸어나가는 일에 있어 입법부가 차지하는 몫을 성실히 이행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홍미영의원이 생각하는 정치는 더불어 사는 사회, 약자와 가난한 자가 살기 좋은 세상, 깨끗한 정치풍토를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옆자리에 앉은 동료의원의 의정평가에서, 그를 지원하고 있는 주변 인사들의 인물평가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그의 삶을 지켜본 딸의 눈에 비친 어머니의 모습에서 그의 일관된 올곧음이 드러난다. 의정과 삶을 통해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것이 돋보인다.

나는 홍미영의원이 젊은 날 여성운동과 지역사회운동에서 펼쳤던 활동을 지켜보았고 초대 기초의원선거 유세장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르는 감동의 순간을 간직하고 있다. 그것은 홍의원이 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구체적인 지역문제를 소상하게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또박또박 제시함으로써 유권자들의 갈채를 받았던 때의 일이다. 참다운 의미에서의 생활정치인의 탄생을 확실시되는 순간이었다.

이 책에는 홍의원이 정계에 입문하게 된 계기와 동기는 물론 정치철학 그리고 여러 번 치른 선거를 통해 체험한 '선거노하우' 그리고 의정활동의 모범사례들이 진솔하게 서술되어 있다. 특히 홍의원의 선거노하우는 깨끗한 선거의 모델이기도 하다. 금력, 학연, 혈연, 지연 등이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여성 또는 시민운동가 출신의 신참정치지방생들에게는 금과옥조와 같은 실체함들로 채워져 있다. 나도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게 하는 것이 이 책이 지니고 있는 숨겨진 힘이다.

이 책은 오늘 5월 31일 제4회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햇빛을 보게 되어 시의적절하다. 홍의원은 보다 많은 여성과 신참 생활정치인의 출현을 바라는 마음에서 서둘렀을 것이다.

이 책은 성공적인 선거와 의정활동을 이끌어주는 필독의 지침서로서 각급의회진출을 희망하고 있는 후보들에게 좋은 길라잡이가 될 것이 분명하다.

밀바닥 인생의 고달픔을 아는 정치인, 여성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더불어 사는 사회,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확신하고 의정을 펴고 있는 홍의원을 닮은 의원들이 의회에 다수 진출하기를 꿈꾸며 이 책의 출판을 환영하고 일독하기를 권한다.